

80年代의 韓國 水產政策

一新 海洋時代의 課題

釜山水產大學 教授 高 冠 瑞

우리나라 遠洋漁業發展의 契機가 두번 있었는데 그 첫번째는 日本의 經濟成長과 더불어 더 支撐할 수 없게된 참치漁船의 中古船 導入과 高級勞動力의 合流로 1960年代의 遠洋참치漁業이 꽃을 피우게 된 것이고 두번째는 白鯨號의 北洋漁場 調査를 契機로 發展 하게된 北洋트로울漁業이다.

遠洋漁業은 急成長을 거듭하여 漁獲量에서 世界 第七位 輸出에서 世界 第四位라는 位置까지 올려 놓기는 하였으나 Nixon Shock, 200 海里 shock, Oil Shock等 二重, 三重의 試鍊을 겪으면서 새로운 轉換을 模索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기에 世界 150餘國中에서 우리나라가 世界 第七位 以上을 차지할 國力이라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位置까지 끌어 올린 것만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底力은 누가 무어라 해도 韓國에 釜山水產大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否認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矜持를 가지고 있다.

80年代는 政治적으로도 維新體制에서 民主體制로 轉換되는 새 歷史의 始點이 되는 해다. 水產業도 矜持에서 窮地에 몰려 있는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 轉換을 마련 하여야 하겠다.

現在의 水產業은 沿岸漁業에서 近海漁業, 近海漁業에서 遠洋漁業으로 生産力 擴大主義에 의한 無計劃의 膨脹을 하였는데 그 膨脹過程에는 特惠, 癒著, 無知等 各種 不條理가 介入되어 免許 및 許可漁業이 亂發, 韓國漁船이 가는 곳마다 水產資源이 荒廢化되고 있는 實情이다.

結論부터 말한다면 現在의 狀況면 내적이 된다는 狩獵時代의 水產政策을 白紙化해서 資源管理型 漁業體制로 大轉換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遠洋漁業은 遠洋漁業대로, 養

殖業은 養殖業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生産, 流通, 加工 및 消費의 諸過程을 綜合적으로 System化해서 水產資源에 대한 調和와 均衡을 이룬 政策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水產業의 問題點을 提起하라고 하면 으레히 1) 新漁場의 開發 2) 未利用 資源의 開發 3) 새로운 技術의 導入 4) 水產資源의 保護와 管理 5) 汚染의 防止 6) 對外 漁業協力の 強化, 7) 流通構造의 改善等…… 많은 項目을 列舉할 수 있으나 沿岸漁業과 遠洋漁業의 問題에 관해서만 言及하려고 한다. 먼저 遠洋漁業은 새 海洋秩序時代에 들어서면서 부터 先進國, 中進國 및 發展途上國間의 利害關係가 相異하기 때문에 海洋秩序에 대한 主張도 어떤 나라는 民族主義의 立場을 취하고 또 어떤 나라는 國際協調主義의 立場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 時代에 對應하기 위하여 實績確保라는 意味에서 우리나라는 入漁料支拂, 技術援助, 合作會社設立 및 漁業協定等 突破口를 찾는 同時에 南水洋의 實驗操業 또는 南美 및 南아프리카 近海의 漁場開發等에도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위와는 달리 自己 生産보다 買入을 통한 開發 輸入方法, 沿岸의 再開發等도 反射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項目中에서 對外 漁業協력에 관한 問題만을 擇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現在의 重要 漁業經營主는 大部分 젊었을때 自己 自身이 배를 탔던가 船長의 經驗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뒤에는 財閥級 企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水產會社도 있지만 實際運營은 實務에 經驗이 있는 사람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척같이 끈질기고 괴로움을 참을 줄은 알지만 옛날과 달리 經營의 規模나 質面에서 諸情勢가 急變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둔감하다. 참치연승漁業이나 트로울漁業이 世界各地에서 行하여 지고 있으나 船主自身은 勿論 그 後繼者나 事務員에게 英語나 spain語 등을 배우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 동안은 政府에서도 손댈 수 없는 아프리카 벽지까지 파고 들어 가서 사탕밭림 해 가며 合併會社設立, 入漁料 등을 支給해 가면서 沿岸操業權을 얻어 냈으나 沿岸漁業國들도 이제는 철이 들어 그러한 잔 재주로는 어쩔 수 없는 狀態에 도달 하였다. 漁業의 規模나 持續面에서도 國力이 뒷받침 하여 서로 信賴를 할 수 있는 가운데 주고 받는 관계가 成立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信賴關係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단지 水産物에 의한 유대만이 아니라 서로의 傳統과 文化까지도 理解하고 서로 돕는 관계가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正常的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言語를 구사하지 못하고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것이다. 참된 信賴의 관계는 相對方의 人生觀과 哲學까지도 理解해서 밑바탕에서 서로 理解하여 信賴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數字的인 商業關係만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쉬운 예로 日本이 인도네시아에 無償糧穀援助를 한 예에서 들어 보기로 하자. 日本에서는 剩餘農産物中 쌀을 인도네시아에 無償으로 援助를 하였다.

援助를 한 日本 사람들은 큰 생색을 낸 양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받은 인도네시아 사람들 한테서는 엉뚱한 反應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熱帶 地方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 쌀을 運搬 또는 保管하고 있는 도중에 變質되기 쉽다.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우리들과 같이 풀기 있는 쌀밥을 좋아하지 않고 알랑미와 같이 풀기 없는 푸슬푸슬한 밥을 좋아한다.

그렇게 되고 보니 일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할 썩은 쌀을 보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無視하였다고 해서 오히려 反感만 산 結果가 되었다.

이와 같은 結果는 相對方을 올바르게 理解하지 못한 데서 오는 웃기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施行錯誤는 우리나라에서도 外國入技術訓練過程에서 나타났다. 그 예를 들자면 限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데서 얻은 나쁜

인상을 씻기 위해 많은 努力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씻기 힘든 것이다.

또 한가지 船主나 指導層意識속에 問題가 되는 것은 共同體의 意識缺如이다. 中古船을 導入하거나 增船하는데 드는 돈은 있으나 賃金을 올릴 資金이 없다는 것이 되지 않는다.

設備投資가 生産力을 높이고 賣上을 增加시킴으로써 賃金이 올라 갈 수 있다면은 좋겠으나 漁業에서는 資源이 거의 一定하므로 이런 일을 하면 資源을 枯渴시켜 오히려 收入을 減少시키는 結果가 되기도 한다. 漁船의 大型化는 이러한 意味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된 것은 며칠전 標準漁船設計에 관한 會議에서 標準型이라는 것이 現在使用하고 있는 漁船中에서 第一 큰 漁船을 標準型으로 設計한 것을 보고 절실히 느낀 것이다. 勿論 大型化 하는데서 오는 利點이야 많겠지만 지금과 같은 人力難과 에너지 問題가 深刻 할때 省力化, 燃料의 節約을 생각하지 않은 標準型이라는 것은 無意味한 것이다. 隻數는 그대로 두고 無條件 漁船의 大型化와 動力化를 추진 한다는 것은 一定資源에 대한 過多投資가 될 수도 있다. 最近까지는 資產規模, 生産金額 및 所得을 다같이 伸張시켜도 經營狀態가 良好하였으나 過去와 같은 傾向이 今後에도 繼續되기는 힘들 것이다.

水産物 全體를 보면 需要는 強하나 多獲性 魚는 그렇지 않다. 需要의 變化와 같이 勞動力의 不足問題는 이미 각 水産會社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이지마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希望과 삶의 보람을 안겨 주는 따뜻한 處遇改善이 아쉽다. 그들이 鬭爭을 벌리기 前에 企業의 擴張과 豪華住宅도 좋지만 참 兄弟姉妹와 같이 대해 주는 人間愛가 必要하다.

그들 自身에게 漁夫와 같은 생활을 하라고 하면 3日도 못가서 손을 들 사람들이 漁夫들에게는 一生 동안 그 生活를 甘受 하기를 願하고 있는가?

다음 問題는 system Analysis 方法의 導入 問題이다. 北大西洋에서 소련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先進國의 漁船團에서는 이미 잘 利用하고 있어 合理的인 操業方法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단치도 않은 漁獲과 漁

場에 관한 情報을 秘密로 하고 때로는 虛偽報告를 하여 相對 漁船을 골탕 먹이는 일까지 있다. 소련이나 노르웨이에 비하여 한국 漁船은 서로 競爭하여 能率的일지 모르나 지나친 競爭을 하여 쓸데 없는 虛費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 水產資源에서는 競爭이 곧 濫獲과 直結되기 쉽다.

또 技術導入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再考없이 日本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다.

勿論 水產 第一國인 日本의 影響을 많이 받게 마련이지만 그들이 저지른 試行錯誤를 우리들이 다시 범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例를들면 勞動力問題 解決方法으로써 一次的으로 機械化하여 人員數를 減少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段階로는 漁船의 크기, 生活環境의 改善 또는 新造船을 만들어 船員을 確保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의 새우트로울의 경우를 보면 100톤이 넘는 漁船에서 船員은 3~4명으로서 操業을 하고 있다. 마치 自動車運轉에 機關士나 通信士가 別途로 必要치 않다는 思考方式이다.

沿近海에서 高速機關을 使用하면 船長이 直接 機關을 가동시키고 通信도 SSB를 使用하여 一般船員의 人件費의 2人分 또는 3人分씩 차지하고 있는 高級人員도 減少 시킬 수 있으므로 實際적으로는 7~8人分の 人員 減少와 같은 結果를 가져오게 한다.

船型에 있어서는 中古船을 導入하여 그와 똑같은 漁船을 만들고 있으나 事實은 그 原型 自體가 기름消費를 問題로 하지 않았을 때의 “기름함지”라는 別名이 붙을 정도로 過度한 기름을 浪費하는 漁船인 것이다. 더 날씬한 型態로 만들어 기름을 10%만 節約 한다고 하면 그 10%가 곧 純利潤과 直結 될 수 있는 問題이다.

또한 過去의 漁獲量은 比較的 많아서 그물 끝 자루의 크기도 커야하고 魚艙도 커야 하였으나 지금과 같이 一時에 고기가 많이 漁獲되지 않아 여러번 操業을 되풀이 하여야 할 경우에는 큰 空間도 必要없게 된다. 魚艙의 크기를 30%만 減少시켜 船型을 작게 만들어 기름을 節約 한다면 그것 역시 利潤과 直結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살펴 보면 200海里 問題나 國際的인 對外 問題도 問題려니와 오히려 對內的인 改善이 더 아

쉽고 效果的인 面도 많다.

沿岸業者

遠洋漁業의 萎縮으로 믿을 수 있는 漁業은 沿近海漁業 밖에 없다는 뜻에서 相對的으로 그 地位가 向上 되기는 하였으나 工業進出에 따른 困難은 加重되고 있다. 沿岸漁業은 그 自體의 問題點外에 遠洋漁業에서 故郷에 돌아온 失業 漁夫에 의한 自營壓力, 養殖 生産者들의 過剩 生産에서 오는 餘力을 沿岸漁業에 投入 하려는 壓力, 栽培漁業에 있어서 養魚魚價의 鈍化 및 餌料魚價格의 高騰으로 比較的 原價가 덜 먹히는 漁船漁業의 再轉換에 의한 壓力, 臨海工業化에 따른 諸壓力 等 壓力要素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게 마련이다.

새로운 海洋法下에서 沿近海漁場의 多面的 利用이 不可缺의 課題가 되었다. 從來의 制度를 그대로 두고, 沿岸漁場의 汚染을 그대로 두고 沿岸漁業을 다시 強調해 보았자 별 뜻이 없다.

遠洋漁業이 萎縮되고 더 擴大될 可能性이 희박한 現在 沿近海에 期待를 거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沿岸에서는 放任된 狀態에서 汚染과 埋立이 進行되고 있다. 漁場價値는 低下되고, 漁獲努力은 強化 하는데도 經營은 날이 갈수록 困難해 진다. 價格面에서 挽回를 하려고 하지만 國內消費政策은 왜지고거나 닭고기의 消費政策 以上으로 엉망이다.

近海漁場은 말 할것도 없고, 沿岸에 대한 充分한 環境調查가 行하여 지지 않는 現在 漁場 環境調查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結果에 따라 資源量을 正確히 파악 해서 漁場의 高度利用에 答하여야 한다. 이 基礎資料에 의해서 抜本的制度改革이나, 漁場管理의 主體로서의 漁協을 再檢討, 水產業體의 整理, 減船, 統合 等の 課題가 남게 된다. 진정한 漁民을 위한 團體로서 沿岸漁村 속에서 그 役割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의 新聞報道에 의하면 勞組幹部가 謀 旅館房에서 1,500萬원의 手票를 잃어 話題가 되었었지만 이와 같은 貴族이 勞務者의 탈을 쓰고 일을 하면 안 된다.

淺海養殖은 增産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漁船漁業은 停滯 또는 後退하고 있다. 養殖이 發展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漁船漁業을 凌

駕해서 沿岸漁業을 代表하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漁船漁業의 高度成長을 바랄 수 없는 오늘날 淺海養殖이나 栽培漁業에 希望을 걸지 않을 수도 없다. 漁業環境의 保存이 의심되는 現 狀況에서 環境保存優先의 基本理念이 漁業振興의 大前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이것이 成就되느냐 안 되느냐가 沿岸漁業再建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海外漁場에서 減少된 漁獲量을 國內沿岸에서 補充 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日本에서는 지난 7個年間に 5,000萬個의 “콘크리트 블록”을 沿岸에 投入하였다. 이것은 우물속에 잠살을 던진 격이라 해서 今年부터는 大魚礁 2,500個所에 延長 5,000km에 達하는 블록을 投入하는 一兆圓에 該當하는 魚礁工事を 시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沿岸事業은 많이 하였지만 그 大部分이 漁港事業이나 閣下가 자주 오는 海岸의 美化事業으로는 投資되었지만 沿岸生産事業에 直接投資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海洋環境改善을 水産人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아야 하겠다. 그런 故로 沿岸漁業은 資源掠奪型에서 資源培養型으로, 無制限의 機械化에서 省經費型漁業으로, 不安定漁業에서 持續的 經營安定型漁業으로 中央市場 優先에서 地方市場 優先의 分權의 思想이 優先되어야 하며, 加工過程에서도 低質

蛋白質 利用에서 高級消費型으로 轉換되어야 한다.

끝으로 水産業의 質的向上을 위한 提言 하나만을 더 하고자 한다.

消極的으로는 官費支給에 의한 水産人의 教育도 생각할 수 있으나 勞役性이 強한 業種에 대해서는 忌避하는 傾向이 強하므로 노르웨이와 같은 水産先進國에서 採擇하고 있는 制度를 導入했으면 한다. 그것은 國家的으로 各 個人의 特性을 調査해서 水産 그 自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選拔해서 저마다의 素質을 開發할 수 있게 하며, 税金의 特惠 및 兵役의 免除 等 젊은 世代의 活動舞臺를 열어 주는 制度이다. 이와 같은 特惠를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現在 노르웨이의 水産人의 平均年令은 57歲이다. 이것은 世界 第二次大戰 以後 젊은 世代는 거의 水産分野에 投身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工業立國이 되어서 우리 國民이 그 고된 水産分野에 從事하지 않고 低開發國에서 잡아오는 漁類를 輸入 補充할 수 있을 程度로 成長이 된다면 모르되 國民의 食糧인 動物性蛋白質 確保의 意味에서도 等閑히 할 수 없다.

여하튼 앞으로의 韓國水産業의 再生은 從來와 같은 分斷된 토막 토막의 政策으로서는 不可能하다. 水産 全般에 걸친 綜合的 政策이 政策課題의 中心이 되어야 한다.

